DBpia

죽음의 의미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기독교사상 707, 2017.11, 22-31 (10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기독교서회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49143

APA Style

양명수 (2017). 죽음의 의미. 기독교사상, 707, 22-31.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17/12/22 20: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죽음의 의미

양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에서 '흥수 아이'라고 이름 붙인 구석기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4만 년 전에 살았던 아이의 화석이다. 국화꽃 화석도 같이 발견되었는데, 아이의 주검에 꽃을 뿌리고 슬퍼했던 장례의 흔적으로 보인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죽음을 애도했다.

살아 있는 생명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죽음은 슬픈 일이요, 누구나 꺼리는 일이다. 죽음을 찬양한다면 병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공자도 말씀하기를,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라고 했다. 새가 죽을 때 내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으나, 그 울음소리를 슬프게 느낀 공자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한 개체의 스러짐, 살려고 애쓰던 한 존재의 죽음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인간에게 죽음은 삶의 진실에 순응하는 계기일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

1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아마 개인의식이 서구만큼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학은 인문주의이지만 서구의 인문주의와 비교할 때 자연주의적 인문주의라고 해야 한다.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고 본다는 점에서 인문주의이지만, 인간이 실현할 가장 큰 덕을 자연에서 본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자연은 존재하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스러지면서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자리를 넘긴다. 인간의 생사에 관해 우리 조상들은 자연주의적 낙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유학자들이 제일 싫어한 것이 영혼불멸설이었다.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 삼비아시(F. Sambiasi)가 쓴 『영언여작』(靈言蠡勺)이라는 책이 한국에 전해졌는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고, 인간의 영혼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신후담이나 안정복 같은 유학자들이 볼 때 기독교의 영혼불멸은 죽기 싫어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비쳐졌고, 공과와 관계없이 믿는 자가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주장은 천박한 이기주의로 보였다.

유학에서 볼 때 모든 사물은 기(氣)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의 삶과 죽음은 취산굴신(聚散屈伸)하는 기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기는 뭉쳤다가 다시 흩어지기 마련이다. 인간을 영, 혼, 육으로 나눈 서구 플라톤주의와 달리, 유학에서는 인간을 혼백(魂魄)으로 본다. 혼백은 기의 작용이요, 음양의 자취일 뿐이다. 주희는 혼을 "기의 신(神)이다."라고 했는데, 신이란 초월적 실체가 아니라 기의 신묘한 작용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유학에서 혼은 기의 작용이고 생기일 뿐이며, 따라서 사물의 형체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 몸을 떠나 따로 자립할 수 있는 것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

이 아니다.

기는 뭉쳐서 개체 생명을 이루었다가 죽으면서 흩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백은 땅으로 내려가 흩어지고, 혼은 공중으로 날아가 흩어진다. 다만 혼은 잠시 흩어지지 않고 한 인간의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한다고 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조상의 혼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위패요, 신주이다. 그러나 결국 혼도 흩어지고 개인의 정체성은 유지되지 않는다. 죽음으로 인해 한 개인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학의 우주론으로 보면 기 일원론이고, 기독교의 하나님 같은 초월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일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세 유학인 성리학은 태극을 리(理)라고 해서 기와 별개로 우주를 섭리하는 원리를 설정하고 도덕 형이상학을 정립했지만, 리를 기와 별개의 초월적 실체로 보지 않았다. 개인의 영혼불멸은 대개 이 땅의 삶에 대한 인과응보의 문제 이른바 심판과 관련이 있고, 그러려면 시공을 초월한 심판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초월자를 인정하지 않는 유학은 개인의 영혼불멸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유학에서 개인의 위상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개인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자연주의적 사유를 했던 점도 영혼불멸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 같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죽음을 찬양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죽음을 영혼의 해방으로 보는 일은 없었다. 하늘의 뜻은 살리는 데 있고, 만물이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덕이요, 살고 살리는 마음 곧 생의(生意)야말로 인(仁)의 핵심이었다. 주희는 말하기를 "하늘이 만물을 낳으니, 사물 하나하나가 참되다."(天之生物也 一物與一无妄)라고 했다.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하는 것은 모두 선하다."라는 말이나 아퀴나스의 "존재하는 것은 모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

두 참되다."라는 말과 같다. 존재와 삶을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말이다. 다만 기독교가 창조 신앙 때문에 죽음을 죄의 열매로 본 것과 달리, 유학은 개인을 거대한 자연의 순환에 의해 잠시 있다가 멸하는 것으로 보았다.

율곡 이이 선생이 금강산에 갔다가 암자의 스님과 대화하며 이런 시를 읊었다.

> 물고기 뛰고 솔개 나니, 위아래가 똑같구나.
> 실체가 아니요, 그렇다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네.
> 한가로이 미소 지으며 나를 돌아보니,
> 지는 햇빛 받으며 숲속에 홀로 서 있네.

이 시에는 자연이 있고, 불교적 공(空)이 있고, 그리고 유교적 실(實)이 있다. 생명현상이 아무리 치열해도 기가 잠시 뭉쳤다가 흩어지는 것이니 인생은 뜬구름 같은 허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생각하고 노래하는 나는 무엇인가? 느끼고 겪고 의지하고 이룩하는 인간의 삶을 모두 공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하는 성리학자 율곡 선생의 모습이 시에 드러난다.

2

그러나 죽음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 죽음 때문에 삶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까?

죽음을 현대 사상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있으니, 그가 곧 하이데거이다. 그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로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누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

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죽음이 삶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죽음 인식은 특별하다. 죽음을 통해 사람은 무가 되는데, 무가 되는 죽음은 삶의 한계이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나의 죽음은 내가 참으로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죽음을 가능성으로 이해하면서 사람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고유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죽음이 긍정적으로 삶을 규정한다. 누구나 죽는다는 죽음의 필연성이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독특한 가능성이다. 인생의 의미는 참된 자아가 되는 데 있으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죽음을 고유하고 주관적인 죽음으로 만들 수 있을 때, 죽음은 나를 찾는 계기를 선물한다.

일상생활에서 나는 나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산다. 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다.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그 의미를 따라 내가 규정된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런 의미는 무의미하다. 죽음은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이다. 죽음 앞에서 나는 세상에서 좇은 모든 의미가 무의미함을 느낀다. 그러나 의미의 무의미 앞에서 참된 의미가 생긴다. 일상에서 중시하는 의미를 넘어선 의미, 그 참된 의미는 참으로 내가 되는 데에 있다. 죽음 때문에 나는 나의 고유함을 회복할 계기를 갖는다. 죽음을 향한 존재인 인간은 참나가 될 가능성을 가진 자이다. 하이데거의 관심은 '나'의 해체에 있다. 일반 명사인 '사람'의 하나로 이해되는 '나'를 해체할 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 죽음의 확실성은 나의 죽음의 확실성을 알려주고, 참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성별과 신분이나 소속, 가족관계 등이 있다. 또는 부와 지위 같은 나의 소유가 나의 정체를 형성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

하기도 한다. 세상에 사는 한 그런 것은 중요하고, 나는 그런 것들에 의해 규정된다. 그것을 하이데거는 대중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규정되는 나는 본래적인 나가 아니다. 그렇다면 속된 욕망을 버리고 높은 도덕성을 갖추는 게 참나가 되는 길인가? 플라톤과 공자와 퇴계와 칸트의 인문주의는 사심을 버리고 공심을 가짐으로써 참사람이 되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참사람이 되는 게 참나가 되는 것이다. 인문주의는 하늘이 준 선한 본성으로 속된 본능을 억제하고 도덕적 인간이 되라고 교육한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참사람이 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도 기준이 남에게 있고, 도덕적 선악의 기준도 사회에서 오고 남들에게서 온다. 도덕성을 통해 나는 고유한 자아이기를 멈추고, 가치의 이름으로 남들과 사회의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그렇게 인간은 세상에 빠져 있으며 타락해 있다. 타락은 도덕적인 악으로 떨어졌다거나 세속가치에 빠진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본성의 타락을 가리키지도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그들의 평가를 떠나지 못해서 본래적인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게 타락이다. 나는 세상에 빠져 "자기 자신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 세상이 주는 존재감에 몰두하는 한, 나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성을 잃는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 묻혀서 세상에 의해 놀아나는 것이다. 나는 불특정 다수인 그들의 일부가 되어 나를 잃었는데, 그처럼 내가 아닌 나를 나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간다.

여기서 죽음은 존재 가능으로 떠오른다.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중요하다. 나는 한 사람으로 죽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죽듯이 나도 죽는 게 아니다. 죽음의 의미는 오로지 나의 죽음에서 찾아야 한다. 나의 죽음이란 세상이 준 나의 죽음을 말한다. 세상이 준 내가 무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

가 될 때 비로소 고유한 내가 존재한다. 세상이 준 나의 내용이 사라지고 존재만 남을 때, 그 존재가 참나이다. 무가 존재요, 무아가 진아이다. 그래서 죽음은 존재 가능이다. 무로 돌아가는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오히려 그것은 존재 가능으로 떠오른다. 그러므로 죽음은 당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능성으로 다가와 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끝이지만, 죽음의 본질을 오직 나의 죽음에서 찾는다면 죽음은 자아실현의 가능성의 계기가 된다.

나를 나로부터 해방시키는 죽음은 진리의 가능성으로 매 순간 내게 다가와 있다. 그것을 존재의 부름이라고 한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나가 세상에 빠진 나를 부른다. 삶의 의미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데 있지 않고, 참사람이 되는 데 있지도 않고, 나를 찾는 데 있다. 나를 찾으려면 세상이 준 나를 비워야 한다. 나는 나의 죽음을 향해 있고 나의 죽음을 위해 있다. 죽음의 확실성은 존재 가능의 확실성을 알려준다. 죽음은 흔히 건너뛸 수 없는 한계로 여겨지지만, 나의 죽음은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지금도 존재가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나는 내게서 존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다."라고 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깝지만, 참나는 타자보다도 내게서 멀다. 타자는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이 공통부분을 가지고 엉켜 있지만, 참나는 세상을 벗어난 무아이므로 세상 속의 나와 어떤 공통점도 없다. 그래서 참나는 나와 가장 멀다. 그러나 죽음을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볼 때, 죽음은 존재 가능이다. 죽음이 밝혀주는 진리 곧 존재 가능을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이 결단이다. 죽음을 향한 존재는 무아를 향한 존재이고, 무아를 향해서 참나의 가장 자유로운 경지가 열린다. 삶의 의미는 죽음에서 온다.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

3

기독교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음을 죄의 열매로 보는 매우 부자유스러운 죽음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성서는 죽음의 본질을 자연사에서 찾지 않고 살인에서 찾는다. 성서에 나오는 최초의 죽음은 살해에서 비롯되었다. 에덴에서 벗어난 인간에게 닥친 최초 사건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는 사건의 결과였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에 죽임의 폭력과 죽음의 슬픔을 불러들였다. 성서는 죽임에 의한 죽음에 초점을 맞춘다. 아벨은 아무 이유 없이 죽은 억울한 희생자이다. 아벨의 울음소리가 땅속에서부터 들린다. 성서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울음소리를 역사의 첫 시점에 배열함으로써 인간 문화의 근원적 폭력성을 보여준다. 폭력에 의한 죽음이 죽음의 본질이다. 죽임의 죄의 열매가 죽음이다. 가인은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울음소리에 답해야 한다. 잘 살던 형제가 어디로 갔는지를 묻는 하나님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 물음을 회피하고 싶지만, 가인의 후예들은 그 물음 앞에 서서 살아간다. 억울한 피를 흘린 땅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상이 구약성서 전체에 깔려 있다.

그러므로 성서는 먼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과제를 인간 세상에 던진다. 인간의 죽음은 정의의 물음을 낳는다. 성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죽음에 관심을 갖는다. 세상이 잊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묻는다.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는가? 꼭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는 바울의 얘기 뒤에는 인간 문명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 들어 있다.

그러나 억울한 죽음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 세상은 언제나 희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

생양을 만들면서 살아간다. 삶이 희생양을 요청한다. 세상의 삶은 희생양의 죽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삶이 죽음을 부른다. 세상의 죄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고, 인간은 희생양을 만드는 세상 죄의 공범자로 죄인이다. 죄의 본질은 공범에 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고 죄를 잊고 산다. 살기 위해 잊는다. 폭력은 악순환이요, 순환되므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알고 보면 가인도 알 수 없는 차별을 당해서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업신여김의 폭력이 사람을 없애는 죽음을 낳는다. 물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폭력이 인간 세상에 가득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당하면서 사람은 죽어간다.

죄의 필연성 때문에 죽음의 필연성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사람을 죄짓지 않을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죄짓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교부들의 이상한 얘기는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원죄론은 삶의 본래적 아름다움과 자유를 긍정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의식과 연민을 동시에 담고 있다. 존재양식이 된 폭력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그 폭력의 주체이자 피해자인 인간에 대한 연민을 담고 있다. 인간은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이고, 피해자로서만 가해자이다. 누가 그를 사망의 곤고한 몸에서 구해내리요.

기독교는 죽음을 찬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루터는 죽음이 유익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악의 성향은 때때로 이길 수 있지만 결코 뿌리 뽑을 수는 없는데, 그것은 죽으면 사라진다. 마치 죽은 자에게 암 덩어리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듯이 말이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 있는 영생의 희망은 죽음으로 사는 희망이다. 내가 죽음으로 죄의 뿌리가 뽑히고 자유와 의로움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희망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창조 때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

주어진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장차 실현되리라는 믿음이 영생의 소망을 낳는다. 세상과 자신의 죄를 직시하면서, 은총으로 그 죄의 고리에서 벗어난 자가 정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내다보는 믿음이 영생의 소망이다. 영생이 있는 세상 너머의 세상은 꼭 세상 이후의 세상만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죽음관은 죽음을 통해 삶의 진실에 다가가는 길을 보여준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모두 낯설지 않다. 유학의 관점과 하이데거의 관점은 기독교 신앙을 풍부하게 해주리라 믿는다. 가상

양명수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로 『폴 리쾨르의 해석의 갈등 읽기』, 『퇴계 사상의 신학적 이해』 등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 IP: 203.255.***.68 | Accessed 2017/12/22 20:54(KST)